

-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생활안전분과) - 2019년 제2차 정기 분과회의 결과

I 개 요

- 일 시 : 2019. 8. 13.(화) 14:00 ~ 15:30
- 장 소 : 워크숍룸
- 참 석 자 : 15명
 - 위 원(10) : 강현경, 김문천, 김미영, 박민웅, 백대열, 심재신, 이용숙, 정은아, 윤권중(분과위원장), 자치행정과장(간사)
 - 관계공무원(5) : 행정팀장, 미디어팀장, 자연재난팀장, 이광명 주무관(홍보담당관), 최용희 주무관(안전총괄과)



II 주요 안건

- 더 큰 시정위원회 상반기 운영현황 보고
- 신규시책 및 보완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 ① 시민주도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② 폭염대피소 운영

Ⅲ 회의 결과

□ 시민 주도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① 구)소방서 건물을 우선 활용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아산문예회관 건립에만 일정을 맞출 수는 없으므로, 구)소방서 건물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 검토
- ② 채널 마련을 위한 지원 후 시민 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전문업체들과 매칭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스튜디오 및 가상콘텐츠 시설 등을 확충하여 채널을 만든 후 시민이 운영할 수 있는(함께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여야 함.
 - 실제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기업 벤치마킹 실시
- ③ 기타 장비 운영 등
 - 미디어환경은 급변하므로 대학과 연계, MOU체결 등을 통해 장비의 지속적인 순환 필요

□ 폭염대피소 운영

- ① 폭염대피소 신규 운영보다는 기존 쉼터 및 네트워크를 활용
 - 폭염대피소 운영에 수반되는 복지서비스 (음식, 생활용품 제공 등) 및 시설물·인력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이므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임.
- ② 폭염대피소 운영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을 리스트화하여 비상연락체계 및 마을 이·통장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 기타

- ①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 시스템 마련
- ② 아산 유바이크와 관련, 자전거 및 시설물 노후화로 교체 또는 운영 중단 건의

붙임 : 1. 회의록 1부.

발언자	내용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생활안전분과 2019년 제2차 정기분과회의를 시작. • 먼저 윤권중 분과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음.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씀)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2019년 더 큰 시정위원회 상반기 운영현황 보고. (설명)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이번 분과회의의 안건인 '시민 주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폭염대피소 운영' 건에 대하여 분과위원장님 주재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음. •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사업 담당팀장의 설명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질의 또는 자문해 주시기 바람. • 홍보담당관 곽창주 미디어팀장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미디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명)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의견 요구)
강현경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후보지가 어디인지?
미디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영실과학관을 고려 중이나, 리모델링계획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 차순위로 구)소방서 생활문화복합센터 예정지나 건립 예정인 아산문예회관 등을 검토 중이며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음.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인지?
미디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영실과학관이 가장 적합함. 그러나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며 구) 소방서 건물은 시민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아산문예회관 건립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임.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문예회관 건립에만 일정을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구)소방서 건물을 우선 활용하여 건립 후, 아산문예회관 건립이 완료되면 센터를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길 바람.
미디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 중이며 위원장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도 검토 중인 사항임.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주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실패사례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미디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개설 등은 우선 市에서 시작하겠지만,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는데,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추지 못해 구입한 고가 장비도 활용하지 못하고 위탁 업체는 지원을 위한 횡수 채우기에 급급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점점 줄고 구입 장비 또한 노후화되어 결국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발 언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관심이 필요함. 단순히 규모만 크게 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와 시설 확충보다는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할 것임.
미 디 어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렌탈은 한정적으로, 시민 필요장비 위주로 대여하는 방법도 검토 중임. 미디어환경은 급변하므로 필요장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음.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 장비들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성공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함.
박 민 응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는 추진 의지가 있는지? 또한 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미 디 어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함. 다만, 실패사례가 많아 신중히 검토 중인 사항임. •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필요함.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은 첨단 도시, 젊은 도시 이미지의 도시로 추후 미디어부문에서 주도 가능한 선제적 도시가 될 수 있음. 다만, 실패사례가 많으므로 방식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 민간IT분야의 영상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같이 추진하는 방법은 어떤지?
미 디 어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하겠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전문업체들과 매칭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스튜디오, 가상콘텐츠 시설 등을 확충하여 채널을 만든 후 생산되는 콘텐츠를 시민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였으면 함.
미 디 어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안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여 보완, 추진하겠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은 어디까지 접목시킬 예정인지?
미 디 어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가 가능하고 공유·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예정임.
백 대 열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건립시 시민들이 기본 교육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영상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함. 센터가 건립되어 시민들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의 공유센터가 될 것이므로 서브 컨텐츠에 대한 구상이 필요함.
미 디 어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시설 건립이 우선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세부적인 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한 후 리스크 및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과 IT기업들이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첨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의미를 두고 같이 논의가 되면 함.

발 언 자	내 용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시민 중 학생들의 참여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아리와 자치위원회 등이 활성화된 아산시는 기본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봄.
미 디 어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사업 추진시 교육청과 MOU 등을 체결하고 대학과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방 도시재생센터 내 어떤지? 도시재생에 공공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들어가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
미 디 어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현재로서는 어려움.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나 천안 사례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선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심 재 신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쉽지 않을 것임. 장비 등 여러 파트에서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되면 좋을 듯.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VR체험관 같은 체험시설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해 위험요소 중 하나임. 가상현실콘텐츠 제공 등으로 추진하면 좋겠음.
강 현 경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즘 추세는 시민 주도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연계하여 콘텐츠 주제 선정시부터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면 효과적일 것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가 주시길 바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하자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위험성이 크니 민간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 다음은, 안전총괄과 황규민 자연재난팀장님 폭염대피소 운영 건 설명 바람. 논의시 폭염과 같은 맥락으로 혹은 같이 논의하였으면 함.
백 대 열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독거노인이 1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폭염대피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자 연 재 난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별 노인인구를 추산하면 50여 명 정도로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마을회관은 약 500개 정도로 수용에 무리는 없을 것임.
백 대 열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 지역은 마을 단위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지역은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자 연 재 난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염 경보 등 발령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부분과 관리시스템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가 필요함. 시설적인 면에 대하여 먼저 논의해주시기 바람.
박 민 용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염대피소 운영시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임.

발 언 자	내 용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안건은 생활 속에서의 폭염 대응방안 중에 하나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효과성에 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함. • 한가지 제안사항으로, 현재 폭염 대피를 위해 파라솔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디자인이나 색깔 등이 획일적임. 이왕이면 도시미관을 고려한 파라솔이 설치되었으면 함. • 또한, 해당 시설을 파라솔보다는 가변형 시설로 하여 냉·온풍장치를 설치하였으면 함. 예산 문제가 있다면 온양온천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우선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자연재난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이용숙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정류장에는 비닐막이라도 설치해주면 좋겠음.
자연재난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 취득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은 관리자가 필요할 것.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및 시설운영자와의 연계 등 대응체계가 궁금함.
자연재난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38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며, 폭염 예보가 예상되면 사전 회의 등을 통해 연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폭염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① 폭염대피소 운영시 이동수단 ② 시설물 이용에 대한 홍보방법 및 타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 ③ 인력 수급, 예산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대피소를 운영하게 되면 이동수단 뿐 아니라 생활용품 및 먹거리 지원도 필요할 것임. 시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기존 쉼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임. • 또한, 기간 중 상시운영은 쉽지 않을 것임.
자연재난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월 중 한시 운영할 예정이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운영할 계획임. 우리 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운영에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폭염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시 운영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이 끝났지만 이용자가 계속 이용을 원할 경우 대응이 어려울 것임.
백 대 열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을 리스트화하여 폭염시 개별 확인하는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자연재난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에 비상연락체계를 재점검하고, 이·통장님을 통해 수시 확인하고 있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에서 사고가 더 많음.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와 이·통장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일정단계 이상 폭염 발생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보고체계 구축 필요.

발 언 자	내 용
강 현 경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이므로 고민은 필요한 부분임.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함.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이용자가 아산시민인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이 어려운 문제도 있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 • 이로써 안건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되었음.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심 재 신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공간 조성을 위해 휴게소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단속 문구가 기재 되면 좋겠음.
박 민 응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예고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함.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 유바이크와 관련, 자전거 및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 또는 운영 중단을 건의함.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으로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생활안전분과 2019년 제2차 정기분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